

“만해 스님의 심우장 성역화 해야”

동방대학원대 백원기 교수, ‘동방논집’ 서 주장

국보 제1호 승례문이 화마에 소실된 후 문화재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총체적 점검을 통해 문화재 정체성 확립, 체계적 보존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때,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일본 강점에 맞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실천했던 만해 스님의 심우장(서울 성북동 소재 서울기념물 제7호)을 성역화해 민족 주제성 회복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백원기 교수(동방대학원대·사진)는 <동방논집> 제2집에 기고한 ‘심우장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만해 스님 연구가 문화적 측면에 집중됐다”고 지적하고, “만해 스님이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는 것이 싫어 북향으로 집을 지어 생을 마감한 심우장을 민족문화 창달의 공간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장(壽牛莊)은 ‘무상대도(無常大道)를 깨치기 위한 집’이란 뜻이다. 석학 백산 김억을 스님이 초당을 지으려 마련한 북향궁 송림(松林) 중 52평에 후학동지들이 52평을 더해 100여평 공간에 지어졌다. 만해 스님은 “조선 땅이 여러

가 하나의 감옥인데 어떻게 볼 뎀 방에서 편히 살겠느냐”며 심우장 냉돌 위에서 입적했다.

백 교수는 “북향집 심우장 차가운 방에서 꽃꽂이해 앉아 지낸 만해에게 ‘저울추’라는 별명도 있었다. 차디 찬 냉돌에 앉아 혁명과 선의 세계를 끝없이 더듬는 저울추”라고 설명했다.

백원기 교수는 “만해 스님이 떠난 지 64년 된 지금도 성북동 심우장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 동안 자유와 평등을 대외로 실천한 만해가 1933~1944년 말년을 보낸 민족자존의 정체성을 간직한 공간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보존돼야 할 심우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우장 건너편에 일본대사관저가 들어오자 만해 스님 자손인 한영숙씨가 “꼭 보기 싫다”며 이사했다. 지금은 1999년 서울시가 심우장을 매일해 성북구청 관리인이 거주 중이다.

백 교수는 “주변 고려 없이 세워진 기념비와 시멘트 건물, 찢어진 비닐장판·탁구대와 삼 등이 날부러져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방시간조차 일정치 않아 방문했던 시민들이 단

한 문틈 사이로 보이는 흉물스런 건물만 보고 되돌아서는 것도 예사고, 경보장비 및 방화시스템 없이 소화기 몇 개가 전부”라 지적했다.

백원기 교수는 2007년 12월경 만난 성북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자체 의원들이 가시적 공사를 통한 주민 시선끌기에 집중할 뿐, 문화재 관련 예산 배정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백원기 교수는 2005년 12월경 만난 성북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자체 의원들이 가시적 공사를 통한 주민 시선끌기에 집중할 뿐, 문화재 관련 예산 배정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2005년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비전2015, 문화도시 서울’ 계획에 맞게 ‘심우장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백 교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우장 관리운영과 보존을 위해 동방대학원대 총장, 성북구청장, 성북문화원장 등이 모여 ‘심우장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동방대학원대가 만해 스님과 심우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북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학교 교수.



심우장(서울기념물 제7호) 모습. 동방대학원대 백원기 교수는 방치된 심우장을 성역화하자는 구체적 안을 최초로 제시했다.

구 등이 예산 집행 등 행정업무에 담당하자는 내용이다.

백원기 교수는 ▲심우장 주변 정비 ▲심우장 내 만해 흉상 및 시비 건립 ▲만해 추모 문화행사 개최 ▲심우장 관련 학술대회 개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심우장 홍보 ▲인근 사찰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문화대사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옛 것을 찾아 보존하고 현대적이며 창의적인 의미로 활용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문화창달의 중

요한 요소”라며, “심우장 성역화 사업과 함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동방논집> 제2집에는 주명철·설기문·천수정 교수 등 동방대학원대 교수들의 논문이 게재됐다.

주명철 교수는 ‘인도 유신론 철학의 삼매와 해탈’에서 유신론적이며 타락적 전통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는 라마누자 사상에서 발견되는 삼매와 해탈을 자력적 전통과 비교했다.

설기문 교수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에 입각한 NLP(신경-언어 프로그래밍: Neuro-Linguistic Programming)를 태교프로그램에 적용한 ‘NLP에 기반한 태교프로그램의 개발’을 발표했다.

천수정 교수는 ‘노인의 운동참여 동기와 여가만족 및 건강만족의 관계’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운동참여 동기와 외적 동기가 건강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결과를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nia.com

東大 2008 학위 수여식 불교학 박사 논문 풍성

8월 22일 동국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 전체 박사학위 논문 70여편 중 불교학과·인도철학과·선학과 박사학위 논문이 7편을 차지했다.



선심리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지숙씨.

불교학과에서는 원소 스님이 ‘퇴옹 성철 연구’, 김영일씨가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임상희씨가 ‘이통현의 화엄사상 연구’, 양정연씨가 ‘보살정도 연구’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도철학과에서는 심재관씨가 ‘전투신 스칸다(Skanda) 탄생신화의 기원과 발전’, 김경훈씨가 ‘상기와 철학에서 뿌루사(Purusa)의 형수와 특존’으로, 선학과에서는 박지숙(사진)씨가 ‘선심리 치유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박씨의 논문은 선과 심리치료를 연계한 연구에서 구체적 방법론과 임상데이터 자료를 제시한 논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학계에서는 대체의학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선심리치료를 합리성과 보편성, 대중성을 부여한 연구로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양양 낙산사·김제 금산사 사적지정 예고

사찰구역 전체로는 처음

관동팔경 중 하나인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와 미륵신앙 본산으로 법맥을 이어온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사찰구역 전체로는 처음,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8월 22일 낙산사와 금산사의 사적 지정예고를 발표했다. 사적 지정된 양양 낙산사와 김제 금산사는 30일간의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05년 산불로 낙산사 동종과 원통보전이 소실돼 복원사업이 한창인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의 상 대사에 의해 창건됐다. 지정예고한 ‘양양 낙산사 일원’에는 보물 제499호인 ‘낙산사 7층석탑’ 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3호인 ‘낙산사 홍예문’ 등 6건의 지방지정문화재가 포함됐다.

백제시대에 창건해 통일신라시대 진표 율사가 증창한 고찰로 알려져

금산사는 고려시대에는 125동의 건물을 갖추기도 했다. 2007년 발굴조사에서 봉천원구인 왕사각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됐다. 임진왜란 때 뇌륙 대사 처영의 승병 본거지로 호국도량이었으나 정유재란 때 봉천원구와 광교원구가 전소돼 대사구 일부만 현재 남아있다.

사적 지정구역 내에는 국보 제62호 미륵전과 고려시대 석조건축 및 조선후기의 목조건축 11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사적으로 지정된 양양 낙산사 전경.

제5차 월례발표회 개최 9월 5일 선학원 회의실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범진, 이하 선리연구원)은 9월 5일 안국동 선학원 회의실에서 제5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인환 스님(선리연구원 고문)을 좌장으로 인종민 연구원(조계종 불교문화연구원)이 ‘효령대군 이보의 불사에 대하여’를, 김성연(동국대 박사과정)씨가 ‘일제 강점기 잡지 <불교>의 간행과 성격변화’를 발표한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장례문화 국제세미나 9월 5일 東大 다학관서

한·일 불교학자들이 모여 장례문화에 관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본 ‘공양에 관한 비교학회’ 요청으로 열리는 행사는 9월 5일 2시부터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시작된다.

마츠오 겐지(일본, 아미가타 대학) 교수가 ‘일본 중세의 죽음과 불교’, 이성운(동국대 박사과정)씨가 ‘몽산택이의 <선교사적의문>의 수용과 변형’,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유교 및 인도-힌두교에 비추는 불교의 효문제’를 발표한다. (02)2260-3123

조동섭 기자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 어떠한 앰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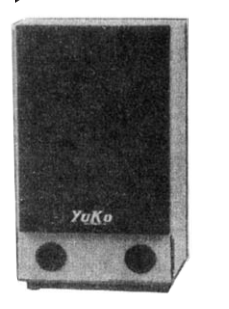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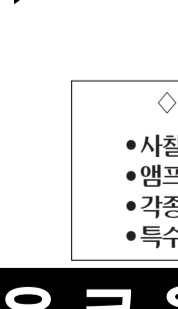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등석: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반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 산 수입 물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이산에서 생산되는 무월본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로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장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 시)물문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물문보존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